

10/11/26

설교 제목: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9 장 1-12 절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막 10:1-12)

-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 2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갈릴리 사역의 막을 내리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사역이십니다.

-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인파들이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룩하지 않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갈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에움길인 베레아를 지나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여든 무리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2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베레아 지역은 평화로운 전원풍의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풍요로웠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의 영향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와 예수님과 신학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핍박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곳 산헤드린에서 바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급파했습니다.

말이 진상 조사단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시험하고 약점을 찾아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을 했습니다.

진상 조사단답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가 메시아이신지를 분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예루살렘 종교 회의와 로마 당국에 고소할 거리만 찾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혼에 대한 이슈를 꺼냅니다.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곳은 세레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부정한 결혼을 문제 삼은 연유로 처형을 당한 곳과 근접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특별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곳 주민들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든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곤경에 처할만한 이슈들을 가져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가한가? 불가한가?'식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시고, 그들의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빠져들지 않으셨습니다. 논제의 본질을 파헤치심으로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험은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결혼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심으로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말씀하시고, 따라서 이혼의 절대 불가성을 피력하십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결혼의 본질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설명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었는데 잠시 분리되었다가, 결혼으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 2:21)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도 여호와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말 2: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에서 ‘한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가 성적 합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근간으로 하여 전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특정한 경우 이혼을 허용한 것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의 율법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 다음과 말하고 있습니다.

(신 24: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 24: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 24: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신 24: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같은 율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렇듯한 이유를 들어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방종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아내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이러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실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결혼법을 지킬만큼 순수하지도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내쫓기 위해 학대를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같은 악을 방지하고자 그들이 저지르는 악에 비해 비교적 작은 악인 이혼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보았을 때 반드시 이혼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결혼법은 이혼이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그들의 최고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며 모세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며 율법 정신을 왜곡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비판하시곤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네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모세의 권위를 초월한 당신의 권위로 절대적인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한 경우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4 절- 8 절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부정은 이혼 금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행동입니다.

본래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한 경우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대신 이혼을 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처벌이 약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같은 엄격한 결혼관에 대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혼의 조건이 이같이 까다로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합니다.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독신이나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십니다.

타고난 자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이나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범이나 명령이 아니라 영적 고자로 부름받은 소수 사람들의 선택적인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결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 곧 영적 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결혼을 하여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있어 최고의 차원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특별한 소명을 부여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제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 언약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결혼과 가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약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쉽게 맺고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이며, 부부는 그 언약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결혼 첫 순간에 품었던 사랑과 서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세상은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이혼을 종용합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며 굳건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관계의 위기 앞에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인내와 용서로 문제를 풀어 가십시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의 언약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귀한 인연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꾸어 갈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